

‘2015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추진 경과

엄운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한옥공모전 기획 배경과 목적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5회째를 맞이하였다. 공모전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한옥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전통 건축인 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후원하는 공모전은 ‘한옥 준공’, ‘한옥 사진’, ‘한옥 계획’까지 3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한옥공모전의 주제를 살펴보면, 2011년 ‘NEO-Hanok Vision: 진화하는 한옥’을 시작으로 2012년 ‘내가 살고 싶은 집, 한옥’, 2013년 ‘한옥의 가능성’, 2014년 ‘누구나 누리는 한옥’까지 새로운 한옥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왔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올해의 주제는 ‘상상, 그 이상의 한옥’으로 정하였고, 부제로 ‘한옥은()이다’가 제시되었다. 그동안 제시된 한옥의 다양한 가능성과 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참가자들에게 한옥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내려 볼 것을 요청한 것이다.

2015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

상상 그 이상의 한옥, 한옥은()이다.

천 년을 가꿔 온 삶의 터전인 한옥이 어느 순간 손에 잡히지 않는 상상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먹고 자고 일하고 사색하며 관혼상제를 치렀던 과거의 한옥은 신체의 일부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우리의 건축이고 문화였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생각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면서 한옥은 관조의 대상으로, 또 상상의 영역으로 신체와 분리되었다.

신체와 분리된 한옥은 책을 읽어 익혀야 하고 답사를 통해 느껴야 하는 삶의 세계에 갇혔다. 파편적 지식으로 구성된 한옥의 이미지는 불완전한 상상으로 박제화되곤 하여 맹목적 집념이나 이종적 사고로 공허한 논쟁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상상 속의 한옥은 점점 더 하늘 높이 멀어져가고 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인 '상상 그 이상의 한옥'은 상상 속의 한옥을 건축적으로 재정의하는 작업이다. 상상을 넘어서는 방향은 아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과의 조화, 이웃 간의 배려 등 한옥 본연의 가치는 반드시 마당이나 처마 등 구체적인 건축요소를 통해 실증되어야 하고, 현대인의 복잡다단한 신체의 움직임을 반영한 현실 공간 속에서 상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옥이어야 한다는 점이 이번 공모전의 가장 큰 도전과제이다. 구조와 양식으로 규정된 한옥의 제도적 정의를 해체해도 좋으나, 집적된 전통의 맥락과 건축적 정수가 계승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실천적 측면에서 설득력을 지녀야 할 것이다. 한국인의 새로운 몸과 삶에 맞춘 한옥의 정의를 제시하는 일에 최고의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

—2015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주제 해제문

한옥공모전 진행 과정

공모전은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운영위원회 개최와 함께 시작된다. 운영위원회는 전통건축과 현대건축 분야 학계 인사 및 건축사, 사진부문 전문가로 구성되어 한옥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운영위원회는 한 해의 주제를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운영방안 전반에 대한 주요 방향을 설정한다.

2015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2015년 3월 23일 공고되었다. 이와 동시에 사전행사가 3월 28일에 대전 무형문화재전수관과 동춘당 일대에서 열렸다. 그동안 서울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되어 서울 외 지역 학생들이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올해는 대전 지역에서 진행하였다. 행사는 운영위원장 김지민 교수(목포대학교)의 올해 주제와 관련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었으며, 한필원 교수(한남대학교)의 '한옥의 살림집'을 주제로 한 특강, 2014년 계획 부문 대상 수상사례에 대한 발표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동춘당, 송용

억가옥, 동춘선생고택 답사도 진행되었다.

참가등록 및 작품접수는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심사는 8월 한 달간 사진, 준공, 계획 각 부문별로 진행되었다.

사진 부문의 경우 일반인과 청소년 부문에서 모두 506개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건축사진 분야의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영 작가를 심사위원장으로 하여 유현민 대표(Atelier 180), 전형준 회장(한국시각콘텐츠학회)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준공 부문에서는 10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작품을 대상으로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3개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계획 부문은 57개 작품이 접수되었고, 1차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 대상작 18개 작품을 선정한 후 모형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심사위원에는 이호열 교수(부산대학교, 심사위원장), 김은일 교수(전남대학교), 김현진 소장(SPLK건축사사무소), 류성룡 교수(계명대학교), 임형남 소장(가온건축), 한필원 교수(한남대학교)가 참여하여 전통과 현대건축, 건축과 조경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심사를 진행하였다.

준공 부문과 계획 부문의 심사는 디자인 및 시공 품질 등 한옥 건축물의 종합적 완성도와 함께 주변 환경과의 조화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사진 부문에서는 한옥에 대한 창조적 시각을 심사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삼성동의 코엑스(COEX) 1층 B전시홀에서 건축산업 대전 및 녹색건축한마당 행사와 연계하여 전시회를 가졌다. 계획 부문 수상작 중 8점, 준공 부문 수상작 3점, 사진 부문 수상작 32점 등 모두 43개 작품이 전시되었다.

수상작 소개

준공 부문의 최고상인 2015 올해의 한옥대상작으로 선정된 서울시 종로구의 청운문학도서관은 인왕산 성곽길과 연계하여 한옥 체험과 독서의 즐거움을 제



2015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전시회

©한옥진흥



상 준공 부문 올해의 한옥대상 | 청운문학도서관
중 계획 부문 대상 수상작 | '도시 한옥의 풍경을 담다'
하 사진 부문 대상 수상작 | '고즈넉함 속으로'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공하기 위하여 조성되었다. 경사진 대지를 활용하여 상층부에는 주민들이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한옥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저층에는 현대적인 공법으로 도서관을 구성하였다. 공공건축물에 한옥을 접목한 사례로 “한옥의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와는 전통기술의 맥을 잇고 자연스러운 색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통 수제 기와를 제작하여 지붕에 얹었다. 담장 기와는 재개발로 철거되는 한옥의 기와를 재활용하는 등 세심한 배려 또한 돋보였다. 올해의 한옥상에는 성북구청의 홍천 어린이집, 김천 학이재가 선정되었다.

계획 부문의 대상은 기존 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한 한옥의 창의적 활용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은 예재곤(고려대학교)의 ‘도시 한옥의 풍경을 담다’가, 사진 부문 대상은 서울 남산한옥 마을에서 촬영한 이성우의 ‘고즈넉함 속으로’가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전통 한옥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움과 여유로움을 잘 반영하였고, 늦가을을 내린 기와의 흑백 선율이 인상적이며, 한옥의 전체적인 풍경을 새로운 시각에서 구성적·조형적으로 독특하게 풀어내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한편 준공 3개, 계획 18개, 사진 32개 등 모두 53개의 수상작은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

*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홈페이지(<http://www.hanokdb.kr/main/competition/index.do>)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2014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기획 및 운영·관리방안 연구」, 2014.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종로구 ‘청운문학도서관’ 한옥 대상 수상-2015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한옥의 확장 가능성 높게 평가”, 2015.10.8.